

## 複式학급 12名 下向조정 요구

### 포천인재 육성 위한 교육환경 개선책 마련

2006년9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경기도교육위원회 제5대 조돈창 교육위원이 제171회 부터 174회 임시회 등 4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천시 가산면 출신인 조돈창 교육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사항과 2006 교육행정제에 대한 질문 내용 등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주)

#### ▶취임후 주요활동

포천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포천외국어고등학교 설치문제를 경기도교육감과 논의해 포천에서 신속할 부지와 예산이 확보된다면 2010년내에 포천외국어고 설립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포천학생야영장 명칭이 부대리는 분기유를 연상시키고 있어 종합체험학습장으로 명칭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최근 농촌지역 학교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복식학급 기준

경기도는 2개 학급을 합해 15명이하는 복식학급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8명, 충청북도는 9명이하가 되어야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현재 15명이하에서 12명 이하로 하향조정을 요구한 상태다. 이와 같이 조정이 된다면 포천 관내 복식학급이 모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60명미만 통폐합 방침도 그 가치가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에는 46학급의 복식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 ▶기초기초학력 체계적 관리

2006년10월20일 제3차 기초학력 부진 학생 현황을 읽기부진이 초등 136명, 중학생 615명, 고교생 23명이고 쓰기부진은 초등 145명, 중학생 550명, 고교생 19명, 기초수학부진은 초등 184명, 중학생 774명, 고교생 25명으로 통계상으로는 지난해보다 많이 구제되었다고 판단되나 초등학생 부진이 465명, 중학생 부진이 1939명, 고등학생 부진이 67명으로 전체학생수 12만2천720명중 0.06%인 2천 471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부진자가 약 4배이상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볼 때 과연 이 통계가 사실인지 아니면 수치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통계인지 중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부진이 구제관리를 안 하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계획

미진한 상태로 끝난 제3기 교육환경개선특별사업과 기존재정수요증정명목 배제에 따른 재정약화로 시설현상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나 이를 벗어나고 미래지향적 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종합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시설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시설 관리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 ▶학급 인원조정

현재는 시지역과 읍면지역으로 2분하여 급당인원을 설정하고 있으나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로 학교마다 학급유지에 열안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급당 인원정수를 시 지역, 읍면지역, 농어촌 지역으로 3등분하여 급당인원을 조절해야 한다.

#### ▶사랑이 넘치는 학교문화 정착

사랑이 넘치는 학교문화 정착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칭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한편으로는 도 단위 학교폭력 가해 피해 학생 특별수련과정을 가평수련원, 호국교육원 등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발생소지는 예나 지금이나 학교마다 산존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지속적인 선도를 위한 경기 남 북부 지역에 각각 공립 학생선도기숙사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교사들의 농어촌가산점과 접경지역가산점 분리 방안

농촌지역 교사들의 농어촌가산점과 접경지역가산점 분리 방안입니다. 현행 지침으로는 농어촌가산점과 접경지역가산점을 합산하여 상한점 1.5(2.0)점을 인정하고 있어 교사들이 승진 가산점 확보를 위해서 벽지학교가 많은 파주, 김포, 연천 지역에 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가산점과 접경지역가산점을 벽지가산점처럼 분리하여 벽지지역을 안 가고도 가산점을 확보하여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학생야영장 운영개선방안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7개의 학생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다. 단체생활을 통한 학생들 간의 체력단련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야영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제는 단편적인 야영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야영캠프, 영어캠프, 환경캠프, 별자리관찰 캠프 등 다양한 영역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체험학습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7개 학생야영장 파견교사는 전원이 중등교사로 운영되고 있으나 야영현황 대상자 대부분은 초등학생들이다. 지도교사 파견시 초등학생을 지도할 초등교사도 중등교사와 균형을 맞춰 파견해야 한다.

#### ▶지역교육청 중등장학관 보직 안배

그동안 공모제 교육장을 비롯한 비전공직출신 장학관임용, 공모 교장제, 초빙교장 교사제 등 교육공공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 구현을 위한 노력이 서서히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의 장학관 보직안배에는 전문성 있는 교



조돈창 경기도교육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육행정운영으로 볼 때 또는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으로 볼 때 이에 역행하는 일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안성교육청과 김포교육청, 하남광주교육청의 초등출신 교육장, 학무과장, 여주교육청, 연천교육청의 중등출신 교육장, 학무과장 조직의 편파성과 이에 따르는 학교현장에서의 학교관리자들의 소외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2007년도 전후반기 인사 시에는 초등 중등교육이 균등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1 인사원칙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 ▶애국애족 교육 필요

경기교육주요시책은 인성교육과 창의력신장 교육의 충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 교육공공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 구현 등이다. 그러나 어디를 찾아봐도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 교육계획은 없다. 어느 누구의 잘못이든 북쪽은 우리에게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남한 불바다현으로 온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또 한편 전국 곳곳에서 쓰는 좌파다 우파다 하며 평가하기 싸움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애국애족과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애국가 4절까지 부르기, 태극기 뜻 알기, 태극기 그려보기,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 등 태극기에 대한 예절교육과 우리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교육을 유치원교육부터 체계 있게 실시해 글로벌시대에 우리 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주도하는 세계를 만들 엘리트 인재교육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 ▶7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교육위원회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통합'을 골자로 하는 이 법률개정은 교육자치제의 기본 정신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

성을 뒤늦게 교육의 정치 예측화를 가속화하고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폐지를 시도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 ▶포천 지역 교육문제

최근 일선학교에서 육상부가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초·중 연계교육을 통해 경기도 각 학교에 육상선수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포천시청 육상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 포천시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육상부를 해체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그동안 육상꿈나무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뜻 있는 사람들과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 ▶양로 교육위원 활동계획

12월13일 포천시 신읍동 376-15 조양빌딩 3층에 사무실을 개소한다. 앞으로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마음놓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내 고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직장은 포천, 자녀교육은 외지에서 하고 있는 형태가 지속되는 한 지역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내 고장에 있는 학교에 내 자식 보내기 운동'을 통해 포천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

포천신문이 그동안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주로 보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어두운 면, 부정적인 것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의 단정하지 않은 모습과 선생님을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 등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여 각급 학교에서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지금 포천은 이렇다 ⑮ 미군 공여구역주변 발전계획 수립

### 각종 중첩 규제지역 개발 승통트이나

#### 포천시 관광레저사업 등 20여건 道 제출 사업선정 내년 4월 결정, 2008년 이후 시행

경기북부 지역, 특히 포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 법령으로 인해 개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50여년 동안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3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미군공여 주변지역과 반환공여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과 규제완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주택·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의 개선 ▶교육·의료·후생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다.

포천시는 관련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등 포천시 관광레저 개발사업을 비롯한 지하철 포천연장사업, 의정부-포천간 BRT유치 등 20여 개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지난 6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갖고 신청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13일경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대상사업을 내년 1월15일까지 신청받아 경기도발전위원회에 용역을 의뢰, 2007년 12월까지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 전문가 공청회를 마친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 승인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에 제출된 경기도의 연도별 계획은 지방발전위원회 심의와 확정 후 국가종합계획 반영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다.

포천시가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는 20여개 사업의 선정 여부는 빠르면 내년 4월이면 확인할 수 있고 2008년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말이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우 포천시 등 42개 시군구이며 149개 읍면동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32개 시군구와 176개 읍면동

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종합계획 수립 원칙에 의하면 투자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도비와 시비), 민자 유치 등으로 조달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꼭 필요한 경우 혹은 해당 소관부처와 협의 가능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가급적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해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중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과 중복되는 경우 사업의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없도록 상호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지원 특별법은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포천시 입장으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의 선정과 실현여부는 포천시와 시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노력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은 자명할 일이다. 이를 포천시가 발전하는데 기회로 만들려면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는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포천시의 큰 틀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법 시행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기본원칙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사회인프라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는 정부의 지원여건이나 포천시의 재정투자 가능성과 더불어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관련법은 투자비용을 국비와 지방비(도비와 시비) 및 민간투자로 구분하고 있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더라도 국비는 기반시설에 치중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만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행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에 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포천시는 물론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등 시민 대표들은 이번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포천시가 갖추고 있는 현안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에 따라 포천시가 한단계 발돋움할 수 있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http://www.smcoating.com>

포천신문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SM UV Coating

## 최첨단 기술 UV코팅 산업을 이끌어가는 친환경 글로벌 기업 SM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M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SM은 끊임없는 노력과 탐의 결실로 개발한 신개념의 표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UV 코팅 산업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SM은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경영혁신 및 고객에 대한 최적인 서비스를 더욱 가속화하여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UV코팅 분야의 global leader로 도약하는 SM, 그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SM 대표이사 송중재**

### SM PRODUCTS

- **가구/인테리어**  
모든 가구는 SM 특수 코팅 기술로 친환경 인테리어로 바뀝니다.  
(멤브레인용, 래핑용, 오버레이용 생산)
- **광고(Canvas)**  
SM 특수 UV 표면처리 기술로 보다 선명하고 살아있는 듯한 광고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 **가전**  
은나노 표면처리 및 color 코팅기술로 모든 소비자 가전 제품이 upgrade 됩니다.(헤어라인, 펄, 유광제품 생산)
- **SM SERVICE**  
고객에게 필요한 차별화된 제품개발을 위해 기획단계부터 참여까지 hit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품개발 완성단계까지 최적인 맞춤 표면제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썬팅(Window Film)**  
Scratch resistant 특수 코팅기술로 고기능의 윈도우 필름이 제작됩니다.  
(열차단필름, 자외선차단필름, 하드코팅)

■ SM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3-4 남도빌딩 801호 Tel : (02) 542-0520 Fax : (02) 542-3711

■ SM 공장/연구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47-9 Tel : 031)536-1604 Fax : 031)536-1606